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메르헨」

제작: 나오 (@M3_Wor1d)

시나리오 카드: 영하님 지원 (@88903880_All)



시나리오 정보

- 인원: KPC1+PL1 타이만
- 배경: 로맨스 판타지 소설(개변가능)
- 예상 플레이 시간: 약 4시간(채팅 플레이 기준)
- 키퍼링 난이도: ★☆☆☆☆
- 플레이 난이도: ★☆☆☆☆
- 추천 기능: 듣기, 관찰
- 전투 없음, 탐사 적음, 롤플레이링 위주
- 소설 속 최애캐 KPC X KPC를 사랑하는 탐사자
- 시나리오 내에는 로맨스 판타지 소설에 대한 ‘메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빛의물 로판**의 요소를 담은 시나리오입니다. 개변을 통해 로맨스 판타지가 아닌 소설 세계관 속의 인물로 KPC를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메르헨에 가깝습니다.

시작하며...

- 본 시나리오는 CoC(크툴루의 부름) 수호자 룰북을 기반으로 작성된 비공식 팬메이드 타이만(KPC+PC) 시나리오이며, 하우스 룰 및 신화 생물에 대한 자체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나리오 특성 상 맞짝사랑 또는 그에 준하는 로맨틱한 서사를 지닌 관계를 추천드리며, 연인 관계의 경우 성별은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기존 시나리오에 비해 가벼운 시나리오입니다만, 힐링 시나리오로 속이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로스트 확률이 상당합니다.
- KPC와 PC 간의 관계에 따른 스크립트 개편은 자유롭게 허용합니다만, 본 시나리오의 진상에 대한 개편(기믹, 신화생물에 관한 개편)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 무료 배포 시나리오인 만큼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한 키퍼링 커미션을 통해 플레이 하는 것을 금하며, 공개된 곳에서 시나리오를 플레이 하거나 중계하는 활동은 금합니다.
- 본 시나리오에 대하여 멘마 시나리오 등 비방 발언은 지양하여 주십시오.
- 본 시나리오에 대한 직접적 스포일러/공개적인 중계 등의 사실 발각시 지인제화 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의 약칭은 「만사빠」입니다.

개요

당신의 동화, 당신의 꿈,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메르헨—

구름마저 햇빛에 희게 물든 물빛 하늘 아래
애뜻함을 담은 봄을 닮은 바람이 피어난 데이지 꽃처럼 투명한 피부를 스쳤고,
잔물결처럼 퍼지는 옷깃 아래로 나비처럼 나폴거리는 레이스 장식이 흔들렸지요.

문득, 머리 위로 레이스 양산이 만든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시선을 올리면 그곳에는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얼굴이 있습니다.

눈썹을 살짝 덮은 머리칼,
당신이 물들인 분홍빛 볼,
당신을 담은 눈동자—

당신의 꿈의 시작, 당신의 동화의 주인, KPC.

이하 내용은 KP를 위한 정보입니다.
플레이를 원할 경우 스크롤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0. 진상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As Reality!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체험할 수 있는 VR은 더이상 낯선 기술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As Reality는 압도적인 현실 구현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이 ‘사람’들의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주의 연구원 미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감정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의 일부를 활용해 VR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 구현된 적 없던 기술력에 사람들은 모두 열광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들지 않은 물건. 미고가 사람들의 안전까지 고려해 물건을 만들었을리는 없었어요. 그래요, As Reality는 요그 소토스의 공간 그 일부를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배경을 현실화해서 보여주는 VR 기계입니다.

그리고 탐사자는 As Reality를 통해 가장 좋아하는 소셜 속 주인공인 KPC,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0-1. KP노트

Access... As Reality...

하늘에 떠오른 글자들을 보며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머릿 속에 KPC에게, 당신에게 부여된 소셜 속의 설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설정들 속에는 KPC로서 탐사자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설정값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KPC, 당신은 데이터입니다. 탐사자가 스스로의 애정을 이기지 못하고 가상현실 속에 심은 데이터예요. 하지만 동시에 미고의 기술로 구축된 요그 소토스의 공간 안에서 만큼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당신에게는 당신 나름대로의 생존본능이 있었고, 이 공간 안에서 앞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탐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죠. 애초부터 탐사자가 필요에 의해 접속한 공간이니 탐사자가 없다면 제대로 유지될 리 없잖아요?

다행이도 탐사자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짓일 뿐인 당신을. 그러니까 걸어보는 수 밖에 없겠죠. 사랑때문에 탐사자가 이 세계에 남아줄지도 모르겠노라고.

0-2. 시나리오 전개에 대하여

시나리오에는 빙의물 로맨스 판타지 소설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탐사자는 이 세계가 자신이 즐겨 읽는 소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VR에 대해서는 어째서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고의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그것이 탐사자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따라서 탐사자는 이곳이 소설 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 깨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PC와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에서 흔히 있는 무도회, 정원 산책 데이트 등을 즐길 예정이며 그 과정속에서 메타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빙의물 소설과 드림에 가까운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에 해당하는 메타적인 요소를 즐거움으로 가져갈 수 없다면, 플레이를 재고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시나리오에는 크게 로맨스 판타지 소설이 이야기대로 전개되는 부분과 그 사이사이에서 탐사자가 KPC의 언동, 이 세계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되며,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RP가 주가 되는 시나리오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나리오에는 HL 커플을 기준으로 쓰여졌으나, 원하시는 커플에 따라 자유롭게 개변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상의 개변이 일부 필요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그럼, 당신의 사랑이 마침표 없는 긴 글로 남기를.

첫 번째 장

어렵지 않게 탐사자는 자신이 눈을 뜬 이곳이 잠들기 전과는 전혀 다른 장소임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잠들었을 터인 침대도, 익숙한 천장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당신의 동화, 당신의 꿈,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메르헨—

구름마저 햇빛에 희게 물든 물빛 하늘 아래
애뜻함을 담은 봄을 닮은 바람이 피어난 데이지 꽃처럼 투명한 피부를 스쳤고,
잔물결처럼 퍼지는 옷깃 아래로 나비처럼 나폴거리는 레이스 장식이 흔들렸지요.

문득, 머리 위로 레이스 양산이 만든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시선을 올리면 그곳에는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얼굴이 있습니다.

눈썹을 살짝 덮은 머리칼,
당신이 물들인 분홍빛 볼,
당신을 담은 눈동자—

당신의 꿈의 시작, 당신의 동화의 주인, KPC.

즐거 읽었던 소설 속의 인물이 어째서 제 앞에 서 있는 것일지 의문을 느끼기 전에
KPC는 조금은 편한 복장을 걸친 제 가슴팍에 손을 얹고 당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영애,”
“잠시 내게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KPC는 탐사자를 기본적으로 영애라 칭하며 탐사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더라도 탐사자는 어쩔지 물 속에 들어갔을 때처럼 귀가 먹먹해 어떤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분명한 공백으로 두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막연히 느낄 뿐입니다.

KPC는 당신을 영애라 칭합니다.

영애는 분명, KPC가 소설 속의 상대 주인공을 칭할 때 부르던 호칭일 터인데요?

어쩐지 로맨스 판타지계의 소설 설정과 상황이 닮아 있음을 느끼며 탐사자는 소설 속의 개연성이 이끄는대로 KPC의 물음에 응답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긍정으로.

첫번째 자유 RP 구간입니다.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좋으며, 일부 구역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지문은 없으나 메타적으로 기묘하게 여겨질 구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역 별로 탐사자가 눈여겨 보았을 때 특별히 눈치챌 수 있는 것들을 적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묘사 등은 취향대로 추가하거나 생략해주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RP가 중심인 구간임을 유의해주세요.

첫 번째 장 RP 구간은 함께하는 정원 산책 컨셉입니다.

[장미 정원]

싱그러운 풀잎이 벽이 되어 두 사람에게 나아갈 길을 안내합니다.

풀잎 새로 저마다의 색으로 물든 탐스러운 장미송이가 피어있네요.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RP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산책을 콘셉트로 한.

단, 냄새를 맡는다는 지문이 있을 시에는 장미 꽃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주세요.

[인공 호수]

흰 돌이 깔린 정원 한 가운데 하늘 빛을 담은 투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티 없는 대리석 다리가 호수를 가로지르고 놓여 있네요.

호수 주변을 걷는 것도 함께 건너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RP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호숫가를 콘셉트로 한.

단, 호수를 들여다본다는 지문이 있을 시에는 [관찰] 판정 후 호수 표면에 탐사자의 모습이 비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해주세요.

[분수대]

소담스러운 데이지 꽃밭 한 가운데 흰 대리석으로 장식된 분수가 놓여있습니다.

분수의 가장자리는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처럼 만들어져 있네요.

분수 안에는 누군가의 소원을 담은 동전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RP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분수에 앉아 데이트 하는 것을 콘셉트로 한.

[행운] 판정을 통해 분수에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단, 분수 안을 들여다본다는 지문이 있을 시에는 [관찰] 판정 후 호수 표면에 탐사자의 모습이 비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해주세요.

두 번째 장

오후 세시를 알리는 종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에 KPC가 이끄는대로 두 사람 만의 짧은 산책을 마치면, 두 사람의 발이 정원의 한 가운데에 머뭙니다.

훌륭한 미감이 느껴지는 공간은 연인의 밀회를 위해 만들어 진 것처럼 고요합니다.

정원의 장식물들이 으레 그랬듯이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장소는 아치형으로 이루어진 모양새가 제법 그럴 듯 합니다.

막힌 벽이 없어 기둥을 타고오른 장미가 조각상처럼 공간을 장식하고

천장을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에 햇빛이 깨져 바닥에 빛으로 된 문양을 새깁니다.

KPC는 별 다른 말 없이 당신의 손을 이끌어 공간에 들어섭니다.

공간의 한 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KPC가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은 다과상이 간소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부디 영애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던 것도 같습니다.

당신의 의자를 끌어 당신을 앉힌 KPC는 당신의 건너편에 앉아 당신에게 찻잔을 건넵니다.

훌륭한 미감의 찻잔을 제 손끝으로 쓰는 모양새가 사랑스러운 수줍음과 닮아 있음을 과연 당신은 눈치챌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RP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두 사람만의 다과회를 콘셉트로 한.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해주세요.

준비 된 다과류를 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애프터눈티로 애플리콧 바닐라와 다쿠아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시길.

홍차의 향과 다과의 맛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꿈결에 삼킬 때처럼 먹고 있지만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맛도 분명한 모양새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RP를 진행했다 여겨진다면 다음 진행부로 넘어가주세요.

차로 목을 축이기를 몇 번, 자리에서 일어난 KPC는 어떤 결심을 하기라도 한 듯이 당신에게 다가섭니다.

망설임 없이 뚫어내려진 무릎, 그는 당신을 발 밑에서 올려다보며 꽃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를 건넵니다.

장신구에 담긴 꽃은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골라내기라도 한 것처럼 그 빛과 꽃잎의 모양새가 보기 좋습니다.

“내가 오늘 영애를 만나고자 함은,”

“오늘 저녁에 있을 황태자 탄신제 무도회에 대해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 때문인지 당신의 눈을 피했던 KPC는 다시금 당신을 응시하며 입을 엽니다.

“괜찮다면, 아니 부디—”

“나의 무도회 파트너가 되어주겠습니까?”

호수 위에 일렁이는 잔영처럼 빛나는 그의 눈이 담은 감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간절하고 간절히 당신의 긍정을 바라고 있음을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꿈결에서도 그가 당신에게 올 때면 그 손을 기꺼이 잡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그렇다면 아마 지금이 그 손을 쥐어 줄 시간일 터입니다.

무도회 에스코트 신청에 대한 답변을 RP 형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무도회에 입을 옷이나 구두를 탐사자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겠죠. 어느 쪽이든 만족스러울 만큼 RP하신 후 다음 진행부로 넘어가주세요.

당신의 긍정적인 답변에 KPC는 기쁜 낯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을 담아 당신의 손등에 입을 맞췄죠.

당신도 꿈결이라면 깨어나도 좋을 만큼 기뻐합니다.

어떻게 모든 길을 되돌아 소설 속의 당신이 머무르는 거처에 다다랐는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무도회까지의 짧은 이별이 아쉽다는 듯 KPC는 당신을 마주한 채로 몇 걸음 물러서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제 거처가 오롯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들었을 터인 제 방과는 물론 완전히 다른 장소였죠.

그리 큰 방은 아니었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방은 당신이 이곳에서 제법 높은 신분의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도회를 준비하기 전에 잠시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자유탐사 구간입니다. 되도록이면 넘어가는 구간 없이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침대]

동화속에서나 보았던 장식용 커튼이 주렁주렁 달린 침대는 안락해보입니다.

그 곁에 당신의 밤을 지켜줄 작은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침대의 중앙에는 ‘무도회 초청장’이 놓여 있습니다. 발견한다면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울]

[탁상]에 놓인 책으로 탐사자의 모습을 동기화 하기 전,

거울 속에 당신은 흐릿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눈을 찌푸리고 자세히 보려 해도 그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탁상]에 놓인 책으로 탐사자의 모습을 동기화 했을 경우,

거울 속의 당신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잘 비치는 깨끗한 거울의 모습입니다.

[탁상]

탁상은 나무결이 살아있는 모양새입니다.

한 가운데에 검은 표지로 덮인 책이 한권 놓여 있을 뿐 특별해보이지 않습니다.

책을 확인해볼까요?

책의 표지에는 As Reality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 쯤 표지까지 본다면 별도의 판정 없이 쉬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검은 표지를 넘기면 책 안은 백지처럼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책에 의문을 느낄 쯤, 하얀 종이 아래에서 검은 글자들이 떠오릅니다.

글자는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면 탐사자의 데이터가 동기화됩니다. 거울 등에 탐사자의 모습이 동기화되며 맛이나 향이 온전하게 느껴집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True Ending 조건으로는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탐사자의 이름이 입력됐을 경우 KPC는 탐사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지문 출력 시 이전의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하여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세 번째 장

짧은 혼자만의 시간이 지나면 무도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거처로 들어섭니다.

분주한 손길에 몸을 맡기면, 이전보다도 조금 더 정돈된 차림이 되어 있을테죠.

가슴에 KPC가 건넨 코사지를 달고 설렘에 몇차례 춤을 추듯 빙그르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머지 않아 거처의 문 앞에 하얀 말이 끄는 마차가 다다르고 그 안에서 오늘 밤 당신을 에스코트 할 KPC가 내려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보입니다.

KPC 인장은 조금 편한 복장으로 하나, 무도회 용 복장으로 하나 준비해두심을 권장드리나, 하나로 통일하셔도 좋습니다.

무도회장에 다다를 때까지 짧게 RP 가능합니다. 긴장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고, 날씨에 대해 말해도 좋겠죠. RP를 원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마차가 달려서 무도회장에 도착했다는 정도만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이윽고 무도회가 열리는 성에 다다르면 마차가 멈춰서고 KPC가 먼저 내려 당신에게 손을 내밅니다.

화려한 조명을 등진 KPC는 소설을 읽으며 상상했을 때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발걸음을 맞춰 계단을 올라 고풍스러운 장식과 음악으로 가득찬 공간에 도착할 때 까지도 KPC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첫 번째 춤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영애.”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것을 콘셉트로 RP를 진행해주세요. 만족할 만큼 여러 곡을 추셔도 상관 없습니다. 춤을 추다가 테라스로 나가 밀회를 즐겨도 괜찮을테죠. 어느 쪽이든 만족스러울 만큼 RP를 진행해주세요. 바로 진상부가 시작됩니다.

커튼을 드리운 테라스의 너머 달빛을 조명삼아 서로의 모습을 온전히 눈에 담습니다.

KPC가 당신을 이끄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준비된 행복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KPC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환상을 당신은 기꺼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것이 아닐테죠.

... KPC가 당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있는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곱데기를 보고 정해진 대로 당신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것일 뿐일 수도 있겠죠.

당신은 그저 KPC를 그리고 그리다 그 사람의 상대로 이 꿈 속에 들어온 불순물입니다.

그렇다면 깨어날 타이밍은 지금이겠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영영 만날 일이 없었을 터인 KPC를 진짜인 것처럼 눈 앞에서 만났는 걸요.

살아가는 세계조차 엇갈린 제 사랑의 손에 못이긴 척 이끌려 하루를 지낼 수 있었는걸요.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은 기억할 수 있을테니,

꿈의 바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만나서 행복했다고 정말 정말 좋아했다고 전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지만 그 말은 꿈 속의 제가 아닌 다른 이의 몫입니다.

———*Disconnect*

———*As Reality...*

당신이 꿈에서 깨려는 결심을 하자, 하늘 위로 커다랗게 글씨가 떠오릅니다.

As Reality... 당신은 기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만, 어쩌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인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성] 판정(0/1))

그리고 그 글씨를 알아보는 것이 오직 당신 혼자 만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를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그런데 어쩌서 떠나가려 하는 겁니까.”

상처입은 것 같은 목소리, 소설 속의 글씨처럼 읽어내릴 수 없는 감정을 담은 눈동자,

KPC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떠나가려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이곳에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져야 했던 거죠?”

행간 사이에 의미를 숨길 여유조차 잃은 KPC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이를 칭하는 것만 같았던 호칭도 버려버렸습니다.

그저 당신을 보고 정해지지 않은 말들을 두서없이 내뱉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당신을 만나서,”

“앞으로도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계절이든 함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당신의 이름이 탐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는 정말, 정말, 기뻐는데...”

찌푸려든 미간, 망설이는 입술 사이에는 낯선 감정이 고입니다.

무언가 참는 것처럼 느리게 KPC는 말합니다.

“꿈이라도 깨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위해 내가 준비한 메르헨 속에서 부디 함께 해주세요.”

“나는 지금 당신이 아주, 아주 간절하니까.”

당신의 눈 앞에 Disconnect와 Y/N이라는 익숙한 글자가 선택을 기다리는 것처럼 깜빡거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탐사자, 나를 선택해주십시오.”

“한 낮의 꿈처럼 나를 사랑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있게, 허락을—”

깜빡거리는 글자 위로 당신은 손을 가져갑니다.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전에 탐사자가 스스로를 책을 통해 동기화 했고 꿈 속에 남고자 한다... 엔딩 A

이전에 탐사자가 스스로를 책을 통해 동기화하지 않았고 꿈속에 남고자 한다... 엔딩 B

꿈속에 남지 않는다... 엔딩 C

마지막 장

[엔딩 A] 내가 그대의 곁에

당신의 선택에 KPC는 기쁜 낮으로 웃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꿈 속에 스스로 갇히는 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메르헨,

당신의 동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꿈!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해피엔딩도 KPC와 함께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면,

앞으로 있을 스물 네번의 시간과 일곱번의 밤낮을 온통 꿈 속에 젖어있어도 좋은 거예요.

진짜 사랑만이 당신을 진짜 살아있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탐사자?

-True Ending-

KPC: ?

탐사자: 로스트

[엔딩 B] 있어줄 수 있길

당신의 선택에 KPC는 기쁜 낯으로 웃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꿈 속에 스스로 갇히는 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메르헨,

당신의 동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꿈!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해피엔딩도 KPC와 함께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면,

앞으로 있을 스물 네번의 시간과 일곱번의 밤낮을 온통 꿈 속에 젖어있어도 좋은 거예요.

진짜 사랑만이 당신을 진짜 살아있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아, 그리고 보니 당신...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 뭐였더라?

-Normal Ending-

KPC: ?

탐사자: 영구 로스트

[엔딩 C] 끊어졌지만 이어진

당신의 선택에 KPC의 모습은 화면이 꺼지듯 일렁이며 사라집니다.

손에 그가 잡은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은 것도 모두 착각이겠죠.

이윽고 눈을 뜨면 익숙한 천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품에 안고 잠든 것처럼 KPC가 주인공으로 나온 책이 당신의 곁에 놓여있었죠.

아, 낮선 기계가 하나 눈에 들어오네요.

—As Reality… 분명 이 이름을 꿈에서도 본 것 같은데.

뭐, 의문을 가질 필요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막 시작 된 오늘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데.

꿈결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뭐, 기분탓이었던 걸까요?

-Best Ending-

KPC: ?

탐사자: 생환

보상: KPC가 주인공인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1d12주 동안 플레이 할 수 있다.

후기

안녕하세요, 나오입니다. 어언 36번째 시나리오로 찾아뵙습니다. 평소보다 가벼운 느낌의 시나리오이지만 어쩐지 작성에 시간이 걸려버린 느낌이네요. 진상을 가볍게 지나치다보니 시나리오를 마친 뒤 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꿈과 가상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소중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어떻게든 결말까지 닿은 빙의물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후기도 짧게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플레이 되시길 바랍니다.